

발랄 로맨스? 짜릿한 복수? 원하는 거 다 해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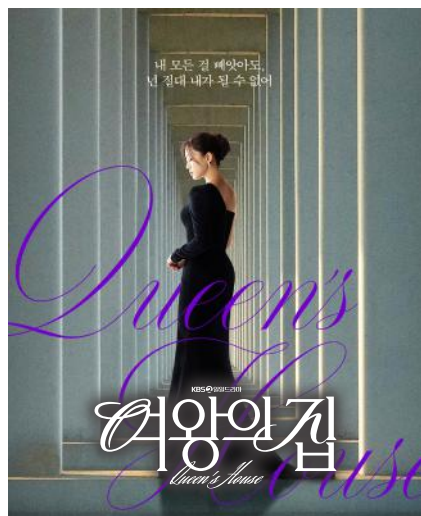
상큼, 발랄한 코믹 청춘 로맨스부터 음모와 치정이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하는 복수극까지.
봄나들이 대신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매력적인 신작 드라마가 잇따라 문을 연다.



사랑도 체력이 필수?...로맨스 근육 키우는 <24시 헬스클럽>

굽은 어깨와 거북목, 불룩 나온 아랫배. 몇 계단 오르면 숨이 가쁘다. 건강관리는 무슨. 일하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데! 일과 연애가 생활의 전부였던 이미란은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실의에 빠진다. 그러다 문득 거울에 비친 구부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동네 헬스클럽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 회원님의 인생을 바꿔주겠다는 헬스클럽 관장 도현중이 내민 손을 덥석 잡아버린다.

4월 30일(수) 시작하는 2TV 새 수목드라마 <24시 헬스클럽>에서 로맨틱 코미디 연기로 정평이 난 정은지가 주인공 공 이미란 역을,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열연한 이준영이 관장 도현중 역을 맡았다. 몸도 마음도 근육이 모자라지만 '단단한' 운명적 사랑을 기다리는 미란과 유명 보디빌더였다가 한순간 낡은 헬스클럽을 떠맡게 된 운동광 현중. 트레이너와 헬스클럽 회원으로 만나 서로의 인생에 불쑥 끼어든 두 사람은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갈까? 주인공 외에도 헬스클럽 터줏대감 직원 최로사(이미도), 호흡 척척 마녀 삼총사 회원(박성연, 이지혜, 홍윤화) 등이 유쾌한 에너지를 시청자들과 나눌 예정이다. <24시 헬스클럽> 4월 30일(수) 밤 9시 50분 KBS 2TV 첫 방송.



“저릿하다, 여왕이 휘두른 복수의 칼 때문에” <여왕의 집>

‘사이드’ 복수극을 기다리는 이들이여, 여왕의 귀환을 놓치지 말라! 지난해 1TV <수지맞은 우리>에서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함은정이 2TV 새 일일드라마 <여왕의 집>의 재벌가 장녀 ‘강재인’으로 돌아온다. 강재인은 신분을 숨기고 아버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최연소 팀장 자리에 오른 유능한 인물. 정략결혼을 거부하고 소개로 만난 검사 김도윤(박운재)과 결혼한다. 그리고 드러난 남편과 친구의 치정, 이혼과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까지 평화로운 삶은 처참히 무너진다.

<여왕의 집>은 100회에 이르는 작품인 만큼 얹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시청자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2022년 방영된 <황금가면>의 김민주 작가와 <미녀와 순정남> 홍석구·홍은미 감독이 의기투합했다. 삶이 완벽하다 믿었던 주인공이 밑바닥까지 치닫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 속 시원한 ‘응징 퍼레이드’를 보여주는 정통 복수극의 문법을 세련된 연출과 매혹적인 대사로 풀어낼 <여왕의 집>은 4월 28일(월) 저녁 7시 50분 첫 방송한다.

한일 수교 60주년 우정콘서트 성료 KBS-NHK 수장 회동...“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화합과 감동의 무대였다. KBS국악관현악단의 ‘아리랑’ 연주를 시작으로 풀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린의 ‘My Destiny’, 나카시마 미카의 ‘눈의 꽃’, 아키카와 마사후미의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등 한일 대표 가수들의 명곡이 울려 퍼졌다. 피날레를 장식한 르세라핌은 젊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내며 음악으로 잇는 우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3월 24일(월) 일본 도쿄 스미다 트리포니홀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우정콘서트’는 문화를 매개로 한 진정 어린 교류의 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공연 전 리셉션에는 일본 왕실의 쓰구코 공주와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했다. 박장범 KBS 사장은 “문화 행사를 통해 더 많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연은 4월 13일(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됐다.

한편, 박장범 KBS 사장은 도쿄 NHK 본사를 찾아 이나바 노부오



NHK 회장과 국제 방송은 물론 방송과 AI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KBS가 미래 비전으로 중점 추진 중인 연구 동 환경 개선, AI 방송과 관련해 NHK 본사 건물 재건축 현황과 AI 전략 진행 상황도 청취했다.

5월은 가정의 달~ 시청자 세상~ KBS '종합선물세트'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우리 지아 잘한다!” “수연이가 최고야!”

4월 19일(토) 서울 여의도 KBS공개홀은 엄마, 아빠의 꿈 떨어지는 응원 소리로 가득했다. <2025 KBS 창작동요대회> 녹화 현장, 반짝이는 응원봉과 알록달록한 현수막을 손에 쥔 관객 300여 명은 아이들의 노래 한 곡 한 곡이 끝날 때마다 함성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1989년 시작해 어느새 35회를 맞은 <2025 KBS 창작동요대회>는 지상파 방송 중 유일한 창작동요 경연 프로그램이다. 꿈이 큰 책가방(2004년),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2005년), 내 손으로 바람을 그려요(2010년) 등 역대 수상곡 20여 곡이 교과서에 실렸다.

올해 출품작은 980편, 두 차례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올라온 12개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단짠단짠’ 요리를 완성하는 한 스푼의 설탕과 소금처럼 가족 안에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비유한 가사, 아이들이 실수로 깜빡한 일을 깜빡이는 별에 빔더어 용기를 주는 내용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재치있는 노랫말과 아름다운 선율로 풀어냈다. <2025 KBS 창작동요대회>는 5월 5일(월) 어린이날 오후 3시 30분 KBS 1TV에서 방송된다.

방청 경쟁률 25:1 <개그콘서트>…저출생 기획 프로그램도 풍성

<개그콘서트> 어린이날 특집이 올해도 이어진다. 4월 3일(목) 시작된 방청 신청엔 2만 명이 몰렸다. 녹화가 진행될 KBS공개홀의 정원은 800명, 무려 25:1의 경쟁률을 보이며 지난해 뜨거웠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어린이 동반 가족 방청객들을 위해 4월 30일(수) 진행될 녹화는 기존보다 한 시간 당



겨진 오후 6시에 시작된다. <개그콘서트> 어린이날 특집은 시청 등급을 15세 이상 시청가에서 전체 관람가로 낮추고 5월 4일(일) 밤 9시 20분 KBS 2TV에서 방송된다.

다양한 저출생 기획 프로그램도 전파를 탄다. 1TV <인간극장-오동네 육아일기(가제)>는 지난해 9월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 가족의 이야기를 5월 12일(월)부터 16일(금) 5일 동안 오전 7시 50분에 연속 방영한다. 일본의 초고령화 흐름을 짚어보고 우리나라 미래 위기를 예측하는 1TV <다큐 인사이드-미래를 따라 오늘을 걷는다. 도쿄 산책>은 5월 15일(목) 밤 10시에 방송된다.

KBS교향악단 임신부 위한 태교 공연 성황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가 울려 퍼지자 아기에게 함께 듣자고 속삭이며 엄마는 배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생상스의 ‘백조’,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교향곡 제7번’ 등 태교에 도움이 되는 4박자 중심의 연주곡

이 이어졌다. 4월 19일(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렸다.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KBS교향악단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공연을 개최한 것. 지난해 연주자였던 바이올리니스트 유신혜(38) 씨는 6월에 태어날 아기와 함께 관객으로 참여해, “클래식만큼 아기에게 좋은 영양분은 없는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첫 아이를 임신 중인 윤지영(40) 씨는 “오늘 남편 생일인데 이번 공연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이 됐다. 너무 감사하다.”며 환하게 웃었다.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는 5월 10일, 7월 5일, 9월 13일, 10월 25일에도 열린다.

▶관람 신청은 KBS교향악단 인스타그램 @kbssymphonyorchestra

I·N·T·E·R·V·I·E·W

“넷째는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선물”



전주총국 유제만 총무국장 가족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에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돌봄에 드는 시간과 비용까지. 아이 낳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주변에서 흔히 듣게 된다. 하지만 부모가 되는 걸 추천한다고 말하는 행복한 다자녀 가정이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 넷을 키우고 있는 전주총국 총무국 유제만 국장을 만났다.

Q 가족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결혼 25년 차 아내와 군 입대를 앞둔 대학교 2학년 첫째, 고3 둘째 아들, 고1 셋째 딸, 초등학교 4학년 막내로 구성된 6인 가족이다.

Q 다자녀를 낳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는 물론 아내도 형제들이 많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 첫째부터 두 살 터울로 낳다 보니 셋째가 생겼을 때는 조금 주저하기도 했지만 넷째가 넷째가 생겼을 때는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끼리 서로서로 챙겨주고 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든다.

Q ‘아이 낳길 잘했네’라고 느꼈던 순간은?

육아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지만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님들께서 손주를 무척 사랑해 주셨을 때와 아이들이 처음 아빠,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다.

Q 반대로 아이가 넷이어서 어려운 점은?

가족 여행을 가려면 정말 큰맘 먹을 정도로 신경 쓸 게 많다.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부담스럽긴 하다. 또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골고루 사랑을 나눠준다고 해도 항상 부족하지 않나 고민하게 된다.

Q 가족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가족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구심점이자 원동력이다.

Q 아이 키우길 망설이는 젊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마디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건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라 따로 조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모가 된다는 건 그 이전의 경험과 완전히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추천하고 싶다.

똥똥한 지역국 프로그램 ‘눈에 띄네’

〈아이=돈+케어?〉, 〈명예의 전당-100인의 의인전〉 주목!

대구에 3대 명산이 있다. 비슬산, 앞산, 그리고 가장 오르기 힘들다는 나머지 하나는 어디? 팔공산? 노(No)! 정답은 바로 저출산! KBS 대구방송총국이 새봄을 맞아 야심 차게 내놓은 전국 최초 임신·출산·육아 버라이어티 〈아이=돈+케어?〉는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정말 필요한 것이 ‘돈(경제적 지원)’인가, ‘케어(돌봄 제도)’인가? 과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한가? 라는 물음에서 탄생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연예인들의 보여주기식 육아가 아닌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출산과 육아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것. 전국에서 지역 소멸이 가장 심각한 대구·경북에서 시작한 점도 의미가 크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55분 대구 경북권 KBS 1TV를 통해 시청자와 만난다.

전국 최초 임신·출산·육아 버라이어티 〈아이=돈+케어?〉



4남매를 키우는 ‘슈퍼맘’ 이자 ‘트로트 여왕’ 정미애, 풍부한 육아 경험을 자랑하는 ‘입담 폭격기’ 개그맨 황영진, 40대 미혼남 진유현 KBS 아나운서, 30대 미혼녀 김보현 뉴스민 기자가 출연해 결혼과 출산을 외면하게 만드는 진입 장벽을 찾아 현실을 진단하

고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

3월 21일(금) 첫 방송에선 아이를 키우는 데 ‘돈’과 ‘케어’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선택하고, 그 이유에 관한 솔직한 경험담을 나눴다. 2, 3회에서는 임신과 출산, 육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양육비 부담이 얼마나 큰지 자세히 들여다봤다. 토크를 중심으로 드라마, 퀴즈, 다큐멘터리 등을 활용한 다채롭고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보는 재미를 더했고, 육아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시청자의 공감을 끌어냈다는 평. 연출을 맡은 김경민 PD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프로그램이어서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인데, 꼭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관심 없던 사람들도 ‘아, 이게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하는 문제구나’ 생각하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 전체를 무력감에 빠뜨리는 대규모 참사와 일상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 현장에서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리의 영웅들. 그들을 우리는 의인(義人)이라 부른다. KBS 춘천방송총국이 새롭게 선보이는 〈명예의 전당-100인의 의인전〉은 우리 주변에 숨은 영웅들의 미담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40분 강원권 KBS 1TV를 통해 시청자를 찾아간다.



일단 출연진의 면면부터 입이 딱 벌어진다. 구독자 50만 명에 육박하는 유튜브 채널 ‘천재이승국’의 크리에이터 이승국이 지상파 방송에서 첫 진행을 맡았고, 대한민국 대표 프로파일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30년 동안 취재 현장을 누빈 박미현 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이 의인 선정위원으로 활약한다. 표창원 소장은 “바쁜 일정 때문에 참여를 망설였는데 기획안을 보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해 흔쾌히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숨은 의인을 찾아라 〈명예의 전당-100인의 의인전〉

4월 9일(수) 첫 방송에서는 2017년 춘천 의암호에서 승용차가 물에 빠져 가라앉는 걸 보고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한 최태준, 김지수, 성준용 씨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고, 4월 16일(수) 2회에서는 11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몸에 소방호스를 묶고 필사적으로 학생들을 구조한 ‘파란 바지 의인’ 김동수 씨를 비롯한 세월호 의인들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연출을 맡은 김영경 PD는 “전국 방송까지 편성돼서 전국의 의인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서, “당장은 의인에 국한하긴 했지만, 이후에 스펀오프처럼 또 다른 경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예의 전당〉은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이메일 jebo@kbs.co.kr 또는 카카오톡 ‘KBS춘천 명예의전당’으로 제보하면 된다.

영덕 TVR 긴급 복구…“재난 방송은 KBS의 사명”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무서운 속도로 번졌다. 화마는 하루 만에 안동을 거쳐 청송, 영덕군까지 점령했고, 3월 26일 〈영덕 TVR〉이 전소되면서 일대에 방송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TVR(TV Relay)은 난시청 지역을 위한 중계 송신소이다. KBS 포항방송국 조항산 송신소에서 쏜 전파는 산간 지형 등의 영향으로 영덕군과 영해읍, 강구면 일부 지역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해발 307m에 세운 영덕 TVR이 조항산 전파를 증폭, 재송신해 4천여 난시청 가구에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월 26일 오전 10시, 전파 송신이 중단된 걸 확인한 포항국 기술부는 송신플랫폼국 송신인프라부와 함께 긴급 복구 작업을 시작했고 27일 저녁 6시부터 1TV 비상 송출을 재개했다. 하지만 한전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 직원들은 2인 1조로 근무하며 야간에 배터리를 충전해 아침에 송신을 개시하는 작업을 이어갔고, 대부분의 재난 대피소와 인근 지역에서 KBS 재난방송 시청이 가능해졌다.

다양한 유료 방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도서, 산간 지역에선 많은 가구가 여전히 직접 수신 방식으로 TV를 시청한다. 영덕군 일대 민방 TVR과 통신사 시설까지 전소되면서 TV를 시청할 유일한 방법은 전파의 직접 수신뿐이었다.

포항방송국 기술부 이재문 사우는 “일부 방송사는 장비 수급이나 인



력 문제로 복구가 어려워 방송 휴지 신청을 했으나 KBS는 시청자 수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재난 방송을 반드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당시 KBS만이 즉각 시설 복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복구 과정은 지역민들이 재난 방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KBS 지역국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모두가 동등하게 재난 정보와 공영방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시청자 여러분의 좋은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알고 반길 수 있는 대중적 인지도를 지닌 사람. 촬영 현장에서 일반인들과 잘 어우러지고 따스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한국인의 밥상〉이 가진 정체성과 의미, 음식 문화를 기록한다는 가치를 이해하고 시청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강한 사람. 〈한국인의 밥상〉 제작진이 ‘국민 아버지’ 최불암의 뒤를 이을 책임자로 배우 최수종을 낙점한 이유다.

2011년 1월 첫 방송 이후 전국 방방곡곡의 한 끼 식사를 통해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담아온 대한민국 대표 푸드멘터리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 ‘맛의 기억 저장소’ 역할을 해온 14년 3개월의 여정 끝에 700회 방송이라는 새 이정표를 세웠다. ‘집들이 밥상’으로 꾸며진 700회 특집은 최수종의 첫 여정이기도 했다. 4월 10일(목)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수종은 “늘 오늘에 충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Q 어떤 마음으로 출연을 결심하셨나요?

처음 연락이 왔을 때 고민했습니다. 쉽게 승낙을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인의 밥상〉 하면 최불암 선생님이고, 그분의 눈빛, 손짓 등 모든 것이 국민에게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하희라 씨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최불암 선생님과의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고두



심 선생님의 한 마디였습니다. ‘수종 씨의 부담감은 알겠지만, 당신의 삶처럼 서로가 공감해 주고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느껴주면 〈한국인의 밥상〉을 잘 표현하지 않을까? 당신의 삶처럼 그 길을 이야기해 봐.’ 그 말 속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아흔이 넘는 어르신이 저를 보시고는 ‘죽기 전에 최수종 당신을 봐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씀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 초등학교생은 저를 보더니 ‘강감찬 장군 최수종! 사인해 주세요!’ 하더군요. 너무나 감동이었죠. 어느 곳에선 아버지 역할, 또 어느 곳에선 아들로써, 삼촌으로써, 이웃집 형, 오

빠로서 다양한 역할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서 좋은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꿈이 있다면 14년, 15년, 그 이상 건강을 지켜가면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Q 매주 방송해야 하는데, 하희라 씨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에 물었을 때 눈만 동그랗게 뜨고 답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 타이틀이 〈한국인의 밥상〉이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그램 제목이 주는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촬영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먹은 음식이 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먹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신기하고, 좋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이런 감사한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너무 행복합니다. 야외에서 식사를 많이 하잖아요. 바람, 공기, 계절과 함께 맛을 느끼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이 행복을 시청자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네요.

Q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늘 오늘입니다. 늘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 해야 할 일, 제가 맡은 책임과 사명, 〈한국인의 밥상〉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꾸준히 잘 따라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담아서 공감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하고 강력한 ‘얼리어잡터’가 온다!



여다보고, 직업계고의 무한한 경쟁력과 가능성을 조명해 진로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지민 PD는 “얼리어잡터 고등학생들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있다. 스스로 정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대학이 정답으로 여겨지는 ‘입시 공화국’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며 새 시즌을 여는 포부를 밝혔다.

첫 회에서는 얼리어잡터의 터줏대감 장성규가 특별 전학생으로 나서 석유화학산업의 인재를 키워내는 여수석유화학고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낸다고. 아울러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에 합격해 갓생을 살고 있다는 졸업생 윤지우 씨의 하루도 소개한다. 새 시즌의 진행자로는 장성규, 황광희, 조나단, 우주 소녀 다영이 활약한다. 〈스카우트6 얼리어잡터〉는 5월 9일(금)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40분 KBS 1TV를 통해 시청자를 찾아간다.

〈신상출시 편스토랑〉 새 단장



금요일 저녁을 굳건히 지키는 ‘착한 예능’ 〈신상출시 편스토랑〉이 봄을 맞아 다채롭고 풍성한 레시피로 새롭게 단장했다.

대한민국 식문화를 이끌어가는 대표 식품 종합 기업 ‘아워홈’과 손잡고 〈편스토랑〉이 내놓는 신상 제품을 아워홈몰,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쿠팡, 마켓컬리 등 다양한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다.

기존의 재미는 꼭 잡고 새로운 재미까지 더한 〈신상출시 편스토랑〉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2TV에서 방송된다.